961-12

2018년 9급 시험대비 한국사 중세문화 특강 (3)

임정원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Ⅰ. 고려의 종교와 사상

2. 유학의 발달

(2) 중기

1) 성격: 문벌 귀족 사회의 발달 → 보수적·귀족적·현실적 성격

2) 문종: 최충, 혜동 공자로 칭송받음(훈고학적 유학에 철학적 경향을 불어넣음), 9재 학당(문헌공도) 설립

3) 인종: 김부식,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유학을 대표, 「삼국사기」편찬

(3) 무신정변 이후

1) 성격: 무신 집권기와 원의 지배하에서 유학이 위축됨.

2) 유학의 쇠퇴: 문벌 귀족 세력(문신)의 몰락으로 유학이 쇠퇴함.

3) 한문학: 향리나 절로 은둔한 학자들에 의하여 한문학이 세련되어짐.

(4) 말기

1) 성리학 전래(충렬왕, 안향):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

※ 청연각·보문학

1116년(예종 11) 궁궐 안에 청연각을 짓고, 문신 중에 유능한 사람으로 학사·직학사·직각 등을 각 1명씩 뽑아 아침저녁으로 경서를 강론하고 시부를 짓게 했다. 또 교감 4명을 두었는데 그중 2명을 어서원의 교감으로 충당시키고 2명은 직사관에게 겸임시켰다. 얼마 뒤 청연각이 궁중에 있기 때문에 학사의 출입과 숙직이 불편하다고 하여, 그해 11월에 옆에다가 따로 각을 관호를 보문각이라 했다. 거기에 대제를 더 두어 종4품관으로 했으며 부속 기관으로 정의당을 지어 학사들이 모여 강론하게 했다.

◈ **자세히 보기-문한 기구**

(1) 한림원: 왕의 교서, 외교 문서 작성

(2) 청연각: 경연처

(3) 보문각: 주요 서화 보관

(4) 춘추관: 역사 편찬

(5) 비서성: 개경에 설치한 도서관

(6) 수서원: 서경에 설치한 도서관

3. 성리학의 전래

(1) 성격

1) 본질: 한·당의 훈고학이나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신유학

2) 특징: 5경보다 4서(논어 · 맹자 · 대학 · 중용)를 중시

(2) 수용
1) 소개: 충렬왕 때 안향이 원에서 「주자전서」들여옴
2) 전수: 백이정이 원에 건너가 성리학을 배움 → 이제현, 박충좌 등에게 전수
3) 전파: 이제현은 연경에 있던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 → 성리학에 대한 이해 심화, 귀국 후 이색 등에게 영향 끼침(이곡과 이색은 정동행성에서 시행하는 향시를 거쳐 원의 제과에 급제).
4) 확산: 충목왕(1344)때 4서가 과거 과목으로 채택, 공민왕 때 이색은 정몽주 · 정도전 · 권근 등을 가르쳐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킴 → 정몽주는 '동방 이학의 조(祖)'라는 칭호를 들음.
5) 정도전은 최초의 성리학 입문서인 「학자지남도」(1375)저술 → 권근은 이를 발전시켜 「입학도설」(1390) 저술

(3) 영향
1)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권문세족과 불교 비판)
2) 일상 생활의 실천적인 기능 강조('소학'과 '주자가례'중시, 가묘 건립)
3) 척불론: 정도전의 「불씨잡변」
4) 지주제 인정: 중소 지주의 입장에서 지주와 소작인 간의 자율적 협력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지주제를 인정함 → 향촌 사회의 안정과 군신공치의 새로운 정치 이념 제시
5) 새로운 국가 · 사회의 지도 이념의 변화(불교 → 성리학)
6) 「소학」: 주자의 제자인 유자징이 유교 윤리의 핵심 내용을 소년들에게 학습시키고자 엮은 수양서
7) 「주자가례」: 주자가 관 · 혼 · 상 · 제의 예법을 정리한 예법서

※ 성리학의 수용
· 안향은 학교가 날로 쇠퇴함을 근심하여 양부에 의논하기를 "재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하고…만년에는 항상 회암 선생(주자)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정모하였으므로 드디어 호를 회헌이라 하였다.
·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 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의를 마치면 서로 더불어 논란하여 권태를 잊게 하였다. 이에 학자들이 많이 모여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주자 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기 되었다.

-「고려사」

Ⅱ. 고려의 학문과 예술

1. 교육

(1) 성종의 교육 정책
1) 교육 정책: 교육 조서 반포, 국자감(중앙) · 향교(지방) 설치
2) 국자감 설치: 개경에 설치된 국립 대학, 유학부(국자학, 태학, 사문학)와 기술학부(율학, 서학, 산학)
3) 향교 설치: 지방에는 향교 설치 →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 교육 담당

4) 박사의 지방 파견: 지방의 12목에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를 각 1명씩 파견하여 지방 관리의 자제를 교육
5) 도서관 설치: 개경에 비서성,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설치
6) 문신월과법 실시: 중앙의 관리에게는 매월 시 3편과 부 1편을, 지방의 관리에게는 1년에 글 1편을 바치게 하여 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

(2) 사학의 발달
1) 배경: 지공거 출신의 대학자가 설립하여 스승과 합격자의 관계가 평생 지속
2) 12도 융성: 고려 중기에는 최충의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
3) 영향: 관학이 위축되었으며, 숭문의 기풍과 학벌이 형성되어 문벌 귀족 사회의 발달이 강화

(3) 관학 정비
1) 숙종: 서적포(서적 간행) 설치
2) 예종: 국학 7재(전문 강좌), 양현고(장학 재단), 청연각·보문각(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 설치
3) 인종: 경사 6학 정비
4) 충렬왕: 섬학전 설치(양현고의 부실 보충), 문묘 건립(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 공자사당 문묘 건립)
5) 공민왕: 최고 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

※ 최충의 9재 학당(문헌공도)
·문종 때 대사 중서령 최충이 후진을 모아 교육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니 선비와 평민의 자제가 최충의 집과 마을에 가득하였다. 마침내 9재로 나누어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진덕, 대화, 대빙이라 하였다. 이를 일컬어 시중최공도라 하였으며 양반 자제들로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는 반드시 도중에 속하여 공부하였다. …9경과 3사를 학습하였다. … 그 후부터 과거에 나아가려는 이는 9재에 이름을 올리니 문헌공도라 이름하였다.
·때로 선진이 찾아오면, 촛불에 금을 그어 시간을 한정하여 시를 짓게 하고 그 석차를 방을 붙여 알리고, 이름을 불러 들어오게 한 후 술자리를 베풀었다. 동자와 관자가 좌우에 서서 술과 안주를 받들어 나아가고 들어갔는데, 예의와 장유의 질서를 갖추었다. 해가 지도록 수창하였는데 보는 자가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후부터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자는 모두 9재의 적속에 이름을 두게 되었는데, 이를 문헌공도라 한다.
-「고려사」

2. 역사서의 편찬

(1) 초기
1) 경향: 고구려의 계승 의식 표방
2) 왕조실록: 건국 초기부터 편찬 → 거란 침입으로 손실
3) 7대 실록: 태조~목종에 이르는 사실을 현종 때 편찬하기 시작, 덕종 때 완성 → 현존하지 않음.
4) 고금록: 문종 때 박인량이 저술 → 전하지 않음

5) 가락국기: 문종 때 금관주지사를 지낸 김양감이 가야의 지방사를 기록
6) 속편년통재: 예종, 삼한~고려 초, 현존하지 않음.

(2) 중기
1) 경향: 신라 계승 의식 강화
2)「삼국사기」: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로서, 고려 초에 쓰여진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삼국을 모두 본기로 서술하였고, 세가는 없음)로 서술되었음

(3) 후기
1) 경향: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 대두(무신 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 나라 안 변화)
2)「해동고승전」: 무신 정권(1215, 고종) 때, 교종 승려 각훈이 왕명으로 편찬, 삼국 시대의 승려 30여 명의 전기 수록, 교종의 입장에서 불교사 정리
3)「동명왕편」: 이규보가 고구려 건국 영웅 동명왕의 업적 칭송, 고구려 계승 의식,「동국이상국집」에 수록
4)「삼국유사」: 일연이 불교사 중심으로 서술, 고대 설화·단군 이야기 수록, 고유 문화와 전통 중시
5)「제왕운기」: 이승휴가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 중국사와 대등하게 파악, 고조선 계승 의식
6)「본조편년강목」(1317, 충숙왕): 문종~고종까지, 편년체, 최초 강목법 사서

(4) 말기
1) 경향: 신진 사대부의 성장 및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정통 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유교 사관 대두
2)「사략」: 이제현은 사략을 비롯한 여러 권의 사서를 저술하였는데 지금은 사략에 실렸던 사론만이 남아 있음. 개혁을 단행하여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편년체로 서술, 정통과 명분 중시, 정도전의「고려국사」에 영향

※「삼국사기」
성상 전하께서 …"또한 그에 관한 옛 기록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주와 왕비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나랏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어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재능과 학문과 식견을 겸비한 인재를 찾아 권위 있는 역사서를 완성하며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동명왕편」
김부식 공이「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을 책이니, 크게 신이한 일로써 후세에 보여 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동명왕의 사적을 매우 간략하게 다루었다. 그

러나 동명왕의 사적은 변화, 신이하여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로 나라를 창시하신 신의 자취인 것이다. 이러하니 이 일을 기술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세에 무엇을 볼 수 있으리요.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를 기념하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근본이 성인의 나라임을 알게 하려 할 뿐이다.